

자 ~ 아 쏜 세 요 ~ !!  
눈 빛 만 스 쳐 도 공 파 !!!



- 참 여 방 법 :
1. 먼저 그림을 훑어본다.
  2. 이루고 싶은 곳에 시선을 둔다.
  3. 눈도장을 팽박한다.

< \* 하루에 한번씩 눈도장을 찍으면 1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바로 잡습니다' 2호 22p 김지혜를 '이지혜'로 바로 잡습니다

## 수기&감상문 모집

여학생잡지 HerStory에서 독자여러분의 수기와 감상문을 모집합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모집기간은 1월 30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alicekty@freechal.com](mailto:alicekty@freechal.com)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호 수기 주제는 '나의 이상형'입니다.

감상문의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캐롤 타브리스, 또하나의문화, 포르노에 도전한다, 캐서린 A 맥키넨, 개마고원,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 베티 도슨, 현실문화연구 대륙의 딸들, 장웅, 금토

# HerStory

부산대여학생잡지



VOL 3 겨울호 2002.12.10



# 여자의窓

글 장동 alook@freecat.com



지난해 여름이던가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같이 페인트칠을 한 건물이 있었다. 사회대, 항공관, 기계관 등등. 무채색톤으로 한껏 칙칙하게. 학내 건물의 공장화라는 모토를 누군가 세운 모양이다. 안그래도 대중 지은 건물들, 색깔마저 대중하면 어찌자는 건지. 혹자는 건물 색을 이상하게 해서 제2캠퍼스로 학생이 가고프게 하려고 한다는 음모론도 제기하던데. 그러나저러나 암튼간에 아름다운 교정에 밝고 화사한 색들을 놓아두고 칙칙한 색으로 도배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페인트업자의 사소한 실수였나, 공무원들의 물취향의 미의식때문인가. 아님 정말로 제2캠퍼스로 물고가려는 고도의 전략인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정을 달라!



부산대여학생잡지 VOL.3 겨울호 2002.12.10

## Contents

|                                      |    |
|--------------------------------------|----|
| [여자의 창]                              | 2  |
| 기획                                   | 4  |
| 총여학생회, 학생회 만나구? 총여에게 제기되는 비판을 반박하며   |    |
| HerStory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 7  |
| 반복된 악습에 누가 재동을 걸어야 하나? -국악과 사태에 돌아보며 | 8  |
| 양심적 방역거부를 허하라                        | 12 |
| [Interview]                          | 16 |
| 부산대 개교52년만에 첫 여성 부총학생회장 정수희          |    |
| '살림'을 꾸려갈 박김혜정을 만나다                  | 18 |
| 부산대 여성주의의 웹진 '월장' 새 멤버를 만나다          | 19 |
| Report                               | 20 |
| 'Perfect' 여휴를 꿈꾸며                    |    |
| 만화                                   | 22 |
| 여자대 (vs) 탐험 (그친구와 나)                 |    |
| 감상문                                  | 24 |
| 「막달레나 자녀들」을 보고                       |    |
| 「성매매 현실제」를 보고                        | 26 |
| 독자수기                                 | 28 |
| 실연                                   |    |
| 별리칼럼                                 | 30 |
| 여자의 생리대, 남자의 밥                       |    |
| 편집후기                                 | 31 |



그림 - 천경자 '두상'

만든곳 헬스토리 총여학생회 잡지팀  
만든이 강동, 팔쥬, 평상심, 명화  
발행일 2002년 12월 10일  
디자인 문화잡지 보일러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4층 총여학생회 T 510-1924

# 총여학생회, 학생회 맞나구?

-총여에게 제기되는 비판을 반박하며



글 라나11300@freedail.com

지난 13대 HerStory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했던 라나에게 일년의 활동에서 느꼈던 점들을 재미있게 적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획의도를 가비압게 비틀어 이번 글을 썼다. 글을 적던 도중 그간 총여에게 제기했던 적절치 않은 비판들에 대한 답변이 그것들보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다. HerStory 총여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다. 그 논쟁의 지점에서 뜻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HerStory 총여에 대한 점검은 다음으로 미룬다. - 편집자

**총**여학생회에서 일년의 활동을 지내고 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 어떤 부분에서는 잘한 일도 있을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일도 있을 것이다. 지금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은 충분히 논 의되어야 하며 한번쯤 변명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어쩌면 이 글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글을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문제의식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상한 운동권 용어도 많이 나올 것 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호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총 여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다.

## 총여가 부당하다는 서비스센터?

올해 초인가 여학생 기숙사에 돈을 내는 문제가 있었다. 기숙사 측에서 이 돈의 쓰임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돈을 내라고 했다. 지금은 기억이 희미하 기는 하지만, 보증금 형식으로 몇 만원의 돈을 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총여학생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왜 총여학생회는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 이다. 나는 왜 이러한 문제를 총여학생회에서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반문했다. 물론 학교 에서 계속적으로 부당한 돈을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총여학생회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 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 학생은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학생은 그 자리에 서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행정실을 찾지도 않았으며 항의하지도 않 았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총여학생회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 정도의 문제는 대학생이라면 스스로 해 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회는 행정기관이나 서비스 기관이 아니다. 학생회는 물론 학교와 외부를 상대로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존재하는 부분

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찾아줄 수는 없다. 사실 자본주의와 한국사 회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수동성이 온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소한 행정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총여학생회가 해결할 수 있 겠는가? 그리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단숨에 누군가가 대신 찾아주기를 바라다면, 그건 공상이며 오산이다.

학생회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나온다. 학생회 선거 가 복지공약 중심의 이미지 선거를 치러지면서 사람들은 총학생회나 총여학생회 혹은 기 타 모든 학생회는 '학생들의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나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학점까지 포기해 가면서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 라 말하고 싶다. 물론 만약 학교에서 쓰임이 미심쩍은 돈을 거두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 힘을 한 곳에 모아서 폭주하 해결 해야 할 때, 이러한 중심에 총여학생회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수동적으 로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자성인으로써도 시민으로써도 자격이 없다고 단호 하게 말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회 일꾼들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 적극 적으로 나서서 고치겠다고는 했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수동성을 오히려 조장하는 부분밖 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회에 대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같이 움직이고 같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일년에 단 한 번씩만 활동할 수 있는 단체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대 입에서부터 대학까지를 공부한다. 대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입학에서부터 학 생의 생활까지도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대학생활의 과정에서도 단 한 번의 총여 학생회는 활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존재하는 부분

## 기층 없으면 못하냐?

올해 초에 총여학생회 예산제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불거졌었고,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총여학생회는 기층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아리 연합회 같은 경우는 본과도 있어 학우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총여학생회 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물론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국 동아리 연합회보다 많은 돈을 따냈기는 했다). 어떤 이에게 우리는 언제나 기층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손해를 본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기층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요구 한다. 여기서 결국 기층이라고 한다면 여학생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활발하게 진 행될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만이 학생회비가 아깝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왜 여학생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까? 총학 생회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과방들이 생내기들이나 후배들에게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하자 하자' 라고 몰라 서 학우들을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과 학생회가 총학 생회 사업과 과 학생회 사업으로든 바쁜 과방이 총여학생회 사업까지도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총여학생회 사업을 중심으로 사고 할 수 있 는 사람이 과에 있어야 하며 이럴 때 전체 운동권 관점으로 봐도 같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 싶다.

첫 번째는 올해 총여학생회 사업에서 사람이 작아서 문제된 사업은 없다는 것이다. 행사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다. 이미 사람들은 개인화되 었다. 자신의 기층에 맞지 않는 사업의 경우 절대 선배가 모신다고 가지는 않는다. 물론 한 두 번은 갈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수 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개인의 내부에 있는 욕망을 자극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다. 과연 지금의 시기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무 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슈화하고 논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다가가려 했다. 선배가 후배를 데리고 오 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그 행사에 참석하고 싶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행 사에 있어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전략은 올해 행사를 봤을 때 성공적이라고 판단한다. 10월 말,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 (밥, 꽃, 양) 상영 이후, 총여학생회에서 선거기 간에 '성매매 현실제'를 열어 '쇼킹 트루스'라는 영화를 상영했다. 선거 준비로 바빠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걱정을 많이 했고, 한 20-30명 정도가 보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영화를 보러 오게 되었다. 심지어 자라가 모자라서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30분 먼저 와서 영화상영을 기다린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총여학생회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그만 큼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여성주의에 대해 문화적 불거리에 대해 욕망이 있었던 것이고 총여학생회가 잘 충 족시킨 것이리라. 사업의 성공 여부를 위해(사람이 많이 참석했느냐 아니냐)로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웃기기는 하지만, 기층이 있을 필요는 없다. 물론 기층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여부의 성공에 있어 기층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판단의 기준이 아 니라는 것이다.

각 운동에 있어 그 운동의 성숙도에 의해 그 시기 필요한 운동의 방식이 존재한다. 기층이 없는 상황에서 기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 을 해야 하는가? 다들 총여학생회를 버리고 따로 들어가서 기층을 만들고 많은 단위가 생겼을 때 다시 모여서 총여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 유효 하냐? 이 물음에 대해 나는 아니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올해 일련의 총여학생회 사업을 보면서 총여학생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총여로 전화를 해 왔고, 우리는 총여학생회와 활동에 그간의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의 미팅을 가졌다. 나는 이렇게 총여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보 여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가꾸고 기층을 만들 수도 있으며 그것이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에 기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나와 가루 그리고 달라는 '마녀들의 카니발'을 통해 만났다. 그 문화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늦게 만나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하고 싶어하는 활동에 대한 열망들이 있고 그러한 열망을 깨 달지 못하거나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런 상황이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었다. 그러나 '마녀들의 카니발'을 통해서 나와 가루가 만났고 별리도 만났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결국 다지와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 다. 이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렇게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 처음의 3명이 지금은 10명 이상의 사람들로 늘어났으며, 우리에게 그 계기는 언 제나 행사였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여들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따로 동아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기층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총여의 행사와 일련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기층을 만드는 작업이며, 크게는 여성운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복지사업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복지사업'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학우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복지사업이 아닌가?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복지사업이 아닌가? 취업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사업이 아닌가? 복지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조금은 동의해야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자신이 별 관심도 없는 <밥, 꽃, 양> 같은 영화를 보여주느니 각 단체 여학생 휴게실에 돈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아니면 문창 여학생 휴게실이라도 좀 더 편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못한 부분도 있고 해야 하는 일도 많다(물론 단체 여학생 휴게실은 단체의 책임이며, 이것까지 총여학생회가 간섭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돈도 사람도 여유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여학생회가 복지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취업강연회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복지사업이 아닌가? 그것이 과연 정치사업인가? 물론 총여학생회 사업들은 복지사업과 정치사업 이러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총학생회도 마찬가지로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공대 화장실이나 여러 단체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총여학생회의 현실이다. 그러한 복지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발협(부산대발견협의회)이라는 학교 예산과 동등의 문제를 협의하는 공간에 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공간에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대한 고민과 행정적 절차와 과정과 등에 대한 노하루가 쌓여 있어야 하며, 그럴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아직 총여학생회가 부발협 공간에 들어간 적은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하루가 전혀 없고, 학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박찬 일이다.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올해 총여학생회는 예전의 총여학생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간 진통도 많았고 이제 갓 태어나 첫 울음을 터트렸다. 물론 9천의 여학생을 대표하는 총여학생회가 갓 시작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니그라움을 가져 달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비판을 받으면서 우리가 방기한 문제를 느끼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느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 총여학생회가 발전해 가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학교 행정이나 예산에 여러 가지 여성을 고려한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쓰이고 그렇게 학교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총여학생회의 권한도 더 커져야 하며 사람들도 더 많아야 한다. 지금은 아직 총여학생회의 역량 상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이 외에 왜 총여학생회는 언제나 선정적인 행사만 하는가? 왜 그렇게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적인 행사를 하는가? 남성을 적으로 상정하는가? 등의 질문도 많이 받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나 토론 속에서 나왔었고 그때그때 나름대로의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해 다들 동의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도 알며, 지면을 통해서나 여러 다른 만남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 물론 사람들은 위의 이야기보다는 답하지 않은 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위세어 말한 문제에 대해 한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의 3가지 주제에 대해 글을 적게 되었다. 다음의 기회를 기약하며,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총여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탄생하는 공간이지만, 기존의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학생회적 성격과 다소 다른 위치에 서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빗어진 총여학생회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비판도 많다고 생각한다. 금세 그런 오해들이 풀릴 수는 없겠지만, 몇 년의 실험과 몇 년의 성과로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만의 '학생회관'과 '학생회'로써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밝은 낙관을 한다.

## HerStory 그리고 나의 이야기

글 라이 itym@herstory.com



대학에 처음 들어온 후 나는 한참동안 막막했다. 과 생활과 동아리 그리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하~ 대학생살, 별거 아니구 나' 하고 차츰 회의감이 생길 때, 학교 이곳저곳에 붙여있는 내 생애 가장 특별한 한 주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문화제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이게 무엇일까? 눈앞에 딱하니 있는 포스터가 편지 내 마음을 끌었다. 그러다 첫 강연회를 깜박하고 있을 때 친한 언니가 '강연회장에 있는데 왜 안오?'고 한다. '아차!' 하면서 성인의 날 축하 케익을 하나 들고 달려가니 강연회는 이미 끝난 상태였고, 총여학생실에서 뒤통이를 댄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갔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와 별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크나큰 착오였다.

일명 '페인3주코스'. 내가 붙인 나의 총여 초기 생활이다. 한가지 더, 3주안에 페인 안되시면 전액환불임! = 문화제동안 내가 총여에서 한 일은 말 그대로 노가다였다. 밤새도록 6명이 겨우 드는 관념적업무부터 콧등서약식 당일까지 단 몇 일 만에 그대로 뻥 뚫었다. 정말 힘들었다. 이 인원으로 기획부터 문화제 당일까지 쉬지않고 달리는 언니들은 괴물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나는 왜 이곳에서 힘들게 일을 했으며, 지금까지 총여에서 무엇을 얻어가는가?

나는 스스로 세상을 많이 안다고 자부해왔다. 그리고 누구보다 힘들게 세상을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총여에 있으면서 나는 누구보다 나에게 대해 알게 되었고, 또 세상의 함몰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문화제가 끝나고 마치 옛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총여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바실이라는 여성주의 기행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여성으로서 자각하며, <월경> 7호에 글도 쓰고, 그리고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상해에 실패조사'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철학 세미나와 feminism 세미나를 했고, 취업강연회를 같이 준비하기도 했었다. 하루하루가 총여를 중심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점차 사회에 대해, 여성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없어서 쉽게 돈버는 자본가가 있고 예뻐지게 일해도 네 가족 부려먹기 힘든 노동자도 있다. 그리고 재벌도 있고 빈민층도 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기도 하다. 정말 재미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남성이 있고 여성도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어머니들은 가사 일에 얽매이며 자식에게 남편에게 큰 소리한번 제대로 못내보며 살까? 왜 다른 남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왜 성폭력 당한 여성이 숨죽이고 가해자 남성은 오히려 멋있을까? 기득권 남성들은 어떻게 바보소리 하는 여성들을 무작위로 공격할 수 있을까? 왜 대부분 여성들은 숨어서 담배를 피워야 할까? 왜 여성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씨도 안 먹히는 걸까? 하는 등 셀 수 없는 의문에 문제점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까, 바뀌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총여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고달픔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사람들의 인식! 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그들'만의 생각 때문에 말하기 힘들었고, 내가 총여에 있다면 '왜 하필 그런 곳에?'라는 물음과 뒤이어 오는 이상한 반응을 때문에 논쟁도 많이 하게 되었다. 총여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총여에서 일한다는 것은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그녀들의 이야기가 내겐 너무 절박했는데 사람들은 비웃는다. 자기들만의 사고와 인식에 빠져, 절박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쓸데없다고 치부해버린다.

나는 총여에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현실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은 점차 진보하고 있다. 언젠가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가 되고 우리 사회의 자체 이태올로기가 약자를 위한 것이 되며 상해매가 없는 그런 곳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를 말할 것이다.

# 반복된 악습에 누가 재통을 걸어야 하나?

- 국악학과 사태를 돌아보며



지난 11월 13일 자유게시판에서 '고함'이 있었다. 국악학과 학생회장 김도원씨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국악학과 악장선거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를 폭로했고 그 글은 6000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조화수 만큼 사진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게 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국악학과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몇 사람은 흥분한 나머지 국악학과를, 예술대를 싸잡아 욕하기도 했다.

## 거기가 어디 댕 세상 이유?

어머나 웬일이냐! 라고 하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결코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자를 자칭한다. 그리고는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심판 역할도 쉬운 게 아님에도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한번 문 때 주기도 한다. 김도원씨는 '국악학과'를 도마 위에 올리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은 국악학과에서 생긴 일 보다 그 일이 생긴 '국악학과'에 더 열을 올리기도 했다.

조직의 문제점이나 비리는 외부에서 보다 내부에서 훨씬 더 발견하기 쉽다. 그러나 그 점을 밝히기는 내부가 훨씬 어렵다. 어려운 고발을 김도원씨는 선택했다. 그 이유는 무서운 습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국악학과의 개선을 절실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는 어려운 내부고발자의 위치를 택했다. 때문에 김도원씨는 다소 과와 서먹해 진 것이 있다고 했다. 그의 그런 뼈아픈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옹호의 목소리를 보냈다. 그러나 그의 고발을 단순히 국악학과와 일로만 한정시켜 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자신과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여겨 '어떻게 그런 곳이다'나 '하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국악학과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된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그는 말했다.

악장에서 사회한 최이정씨는 국악학과는 가족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그 유대가 산후배 관계라는 수직적인 구조로 강요된 것이었다면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국악학과는 일차리가 난무하는 무서운 곳으로 상상하고 있고 심지어 '예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인줄 알았더니 썩은 소리였다'는 글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에 대해 그녀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사건을 소속된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그런 것으로 싸잡아 비난할 수가 있으며 그런 복원에 상대편이 어떤 상처를 입는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냐고 했다.

차이를 치료받을 때 우리는 차이에 밝은 빛을 비춘다. 발가락이 다쳐서 스포트라이트가 발가락으로 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몸이라는 것을 잊는다면 도대체 나는 왜 치료를 하러 갔는가?

##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들

최이정씨는 자신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 아닌가란 생각과 또 자신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몹시 마음이 아파했다. 그런데 이 일의 원인이 과연 그녀에게 있는 것인가?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아야겠다.

최이정씨가 말하는 예전의 자신은 자신의 영역 밖의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녀가 지난 어학연수를 계기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가 본 세상은 너무 넓었고 그 넓은 세상에서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온 그녀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주변에 참여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3학년 총대를 맡았다고 한다. 총대를 하면서 주변의 신입과 지지도 얻었고 그러자 그녀는 악장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 마음을 그녀는 수 차례 돌덩이라고 표현했다. 그 돌덩이를 녹여버릴 만큼 대단한 그녀의 악장 사퇴는 악장역할 수행능력 부족의 이유가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 발을 담그기도 싫은 암중에서 온 것이라고 했다. 그 고정관념(그녀의 남자 선택들은 그녀를 위해 그리고 국악학과를 위해 그녀가 결심을 접기를 권유했다)에 다시 한 번 숙연해지면서, 그녀가 악장을 하려는 마음을 먹는 과정에 그리고 악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어디를 잘못으로 지적해야 할까? 이십 여 년을 남자들이 해왔던 자리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 문제였나? 아니면 자신의 삶의 영역밖에 접점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문제인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원인은 아내의 맛을 갖인가? 절도의 원인은 두꺼운 지갑으로도 돈을 현혹해서 인가? 어떤 남자의 성폭행의 원인은 그녀가 오스한 길을 걸었기 때문인가? 원인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 여성이 악장이 될 수 없는 그들의 이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은 '일이 힘들다'는 것. 여기서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리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십 여명이 그녀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실패해야 할 대상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선출한 사람들이다. 그녀가 괜히 고생할까? 그렇게 생각한 분은 지금 한창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선 주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좋겠다. 저, 너무 힘든 일이고 땀 사람도 할 사람 많은데 그만두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 일은 늘 남자들이 해왔다.' 사람을 남자 여자로 갈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좁은 사야에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해왔다는 하겠다들 막을 정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해왔다'가 앞으로 '해한다'로 이어지는 논리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해왔다는에 얽매었다면 그것은 지나친 집착이며 자신이 인간임을 슬슬 포기하는 것이다. 강아지도 부모가 신대로 산다. 개미는 앞 개미가 간대로 간다. 판단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사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화 단절 시엔 폭력도 불가?

김도원씨를 때린 이유는 그가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의논해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대뜸 나가버리려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선택들이 있는데 말이다. 이게 이유인가 아무리 고민을 해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이유로 사람을 때린다면 세상에 안 맞고 안 때릴 사람 없을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알사람이 300원을 넣어두고 가길래 불렀더니 그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자기들 찾아주겠다는 좋은 의도였는데 내 의도를 무시하다니 멧먹어라 이놈 하면서 한 대 갈겨버리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 가해자들은 사과를 했으므로, 그들이 구타행위를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더 내가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는 규범이나 규칙을 인정하고 사는 국민 시민 동민 구민 ... 주민이다. 굳이 여기서 사회계약론을 들지 않더라도 또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들지 않더라도 타인에 대한 구타는 어떤 명분으로든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발 유치원에서만 가르치면 되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구타, 위협적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다. 이번 경우 친구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이 아니기에 더 무서운 것이었다. 선후배를 비롯한 수직적 관계에 폭력이 개인하게 되면 이는 매우 어그리진 복종을 양산시킨다. 즉 인간으로 할 것 아닌 것들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선후배와 후배들과 나는 결코 그런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다.



## 서로 다른 주피수

김도원씨와 최이정씨의 인터뷰과정에서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최이정씨는 국악학과에서 자신의 악장사피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주피수가 맞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과거의 발전이나 과거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인정하고 있었다. 김도원씨는 구타가 그들과의 의사소통의 단절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구타의 가해자들은 소통을 요구했음에도 김도원씨가 거부한 점을 구타의 이유로 들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구타는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도원씨는 문제의 초점이 구타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 염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그가 고발하고 싶었던 것은 선후배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었다. 물론 그가 구타로 인한 아픔을 호소하기 위해 어렵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타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국악학과와 선배들은 국악학과를 위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국악학과를 위하는 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다. 얼마 전 초등학교학생이 과제부담등의 자유의 부족을 호소하며 복수를 꿈꿨다. 중·고생 중에도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복수를 꿈꾸는 일이 많다. 나는 그들의 죽음이 결코 그들의 나약함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부모는 맞벌이를 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구해 다 주려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노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수고가 훗날 아이의 공부로 인한 노고를 더 줄여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했을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는 죽음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단순히 놀고 싶어 죽은 것이 아니다. 일이 귀찮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목숨이 값싼 것은 아니다. 바로 부모와 사회의 아이를 위한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국악학과가 외형적으로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성원들의 누군가가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약한다면 그 잘 굴러가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여지기 위해 문제를 은폐하는 것인가? 정작 구성원은 큰 상처를 받고 자신의 행동변경을 줄이고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잘 굴러갈 것이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이며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를 되묻고 싶다.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다. 우리는 휴전상태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생겨났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숨이 중요해서 자유를 좀 억압하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은 도리어 국민의 숨통을 조이는 사슬로 더 많이 악용되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방법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목적을 짓밟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소통의 단절을 경험한다.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좀 더 자신에게서 확장된 일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때도 종종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소통은 한쪽면이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닌 필수나 약속처럼 두 손이 만나야 가능한 것이다. 사안이 심각하고 상황이 급박했다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수많은 소통의 단절을 겪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니 행사가 가능하더라도 폭력의 배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이자 약속이다. 더군다나 수직적 관계를 요구하는 즉 어떤 의미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선배들이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포기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다. 공자는 '다움'을 강조한 '예'를 이야기했다. '다움'이란 다름을 뜻한다. 선배와 후배는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선배다움과 후배다움이 생겨난다. 거기서 '예'가 발생하는 것인데 앞뒤는 다 잘라먹고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강요하고 거기에 어긋나자 폭력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은 소통의 단절로도 당연히 용납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소통이 안 된다고 폭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통을 요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타당하고 필요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목적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것 일수록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 악장다이어트를 아십니까?

이제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해보려 한다. 힘든 시간을 겪은 그녀와의 인터뷰인 만큼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최이정씨에게 심경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위에서 저보고 살이 빠졌대요. 그래서 저는 악장다이어트라는 산종 다이어트가 나왔다고 말했죠 뭐."

악장 선출에서 사피. 그 이후 그녀는 몸무게가 2kg이 빠졌다고 한다. 그녀가 받은 스트레스를 다시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고 이 일의 결론을 절망으로 내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절망? 그런 단어 싫어해요. 그렇다고 희망 같은 말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약이라던데... 잘 모르겠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는 하더군요." 처음에 그녀는 큰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악장을 해보겠다는 돌덩이 같은 결심을 녹일 만큼 자신을 사피하게 만든 상황에 큰 염증을 느꼈다고 한다. 그곳에서 발을 빼고 싶은 생각뿐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사피를 결심했다. 조교의 세트설치 요구를 단순히 악장의 역할 승계로만 인식했고 일을 수행하든 그렇지 못하든 도와주리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사피요구를 듣자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고 한다. 이십 년의 관성이 고쳐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물론 예상했었다고 했고 극복하겠다고 마음먹었으나 그 의지자체를 꺾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피해준다는 말은 곧바로 국악 학과학우들이 모인 자리에 전해졌다. 그녀의 마음고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일을 실제로 결론짓지 않으려 했다.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꿈틀댄다는 것을 알았구요,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끝까지 나를 믿고, 열려준 주위 사람들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또 세상은 살만하다고 말이지요."

그녀가 "그" 였던 이 문제는 어쨌든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그녀는 너무도 고마운 일을 해주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사피 이후 새로운 악장후보를 추천 받는 자리에서 여학생이 세 명이 추천되었다. "그때 아. 나는 최이정씨였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중국에 문을 만들 때 땅에 무얼 묻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들의 뼈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산 개의 피를 뿌린다고 하더군요. 묻이란 건 다른 지방과 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로 같아요? 그들을 만나게 하는 문은 그렇게 산 것과 죽은 것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악보에 그려진 것이 죽은 이의 흔적이라면 연주자는 그 악보 위에 살아있는 자신의 노력을 쏟는 거죠. 죽은 악보 위에 산 연주자의 피를 뿌리는 일이지요." 그리고 죽어있는 이상에 살아있는 자신의 피를 뿌려 지금과는 다른 세상, 원하는 일을 여성이든 남성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이 만나는 문을 만드는 데 자신이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그녀의 피는 문을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 새 악장 선출에서 여자악장이 뽑힌 것이다.

## 반복된 행위의 제동은 결국 행위지인 '내'가 걸 수밖에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다군. 롤리 코스터의 '습관'의 가사다. 여기에 인용 되리라곤 조원선씨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테지만, 습관이란게 참 무섭다. 그냥 습관이라서, 그래서 자주 가는 찻집을 또 가고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습관대로 안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고 잘못된 것이라 여긴다. 단순한 반복의 의미였음에도 결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은 나를 것이라고 단정한다. 게다가 그 단정은 많은 이들의 자유로운 침울까지 막아낸다. 여기에는 폭력 등의 외형적 억압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일이 나를 둘러싼 가까운 이들을 통해 자생되므로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과 자신이 아끼는 조직에게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늘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실 차사범이 될지도 모른다. 죽일 맘 없이 실수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개인에게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이자 도전이었다. 습관이 감히 이 도전에게 코웃음을 보내다니 머뭇할 분도 할 일이다. 그러나 그 습관은 내 습관이다. 벗어버리자 이 습관을 벗어버리자! 내가 말이다. 남이 아닌 내가 벗어버려야 한다.

나는 정말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이 태풍의 뱃수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하라!!

글: 양심심 02944@freemal.com



최근 몇년 사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대양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현행 병역법에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대체복무제도 입법이 추진되는 등의 큰 사회적 파장이 휘몰아쳤다. 그런 흐름이 각 대학가로 퍼졌다. 2003년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 100여명이 학생회 선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지지를 공동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대학교 35대 총학생회 '우리pmu'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4대 총학생회 생존전략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 지지를 표하면서 내년 한해 군대와 군대문화에 관한 일련의 행사를 주요사업으로 잡았다.

## 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란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거나 모든 형태의 군사훈련과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종교적 측면(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면위로 오르면서 점차 다양해지는 변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9일 평화운동가 유호근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의 소신을 지키겠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는 비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으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대의 입학생에서도 비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표했다. 오늘날 병역 거부 혹은 징병 거부라는 반전운동, 평화주의에 의거한 정치적·사상적 동기, 개인적 동기에 의해 여러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일제 말기 국민 총동원 시기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을 새겨들었다. 더욱이 군사정권 하에서 군대는 성역화되고 군 관련 이야기는 다 기밀이라고 할 정도로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금기시 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의 양심을 기준으로 행동할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것이 '신성한 군대'에 관련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이렇듯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바탕에 깔린 생각들을 뒤엎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게 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 물어봐서 다녀왔나? '그럼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다녀왔는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허용되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등을 내세우며 반대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은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인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유형은 군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 신분 취득한 자가 군사 훈련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와 병역 의무자가 징병검사 혹은 입영 기피 등으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의 경우에는 군형법의 항명죄로 처벌받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2001년 12월 15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수용된 자의 총수는 1600여명이며, 전체 처벌받은 수는 1만 명을 넘는다. 또한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매년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행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2001년 중반 이전에는 항명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이후로는 민간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8개월 내지 26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이렇게 실행한 법조항에 따라 매년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형을 받고 있다. 이들은 종교적·정치적 이유 등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과연 이들이 감옥에서 보내야 할 만큼 잘못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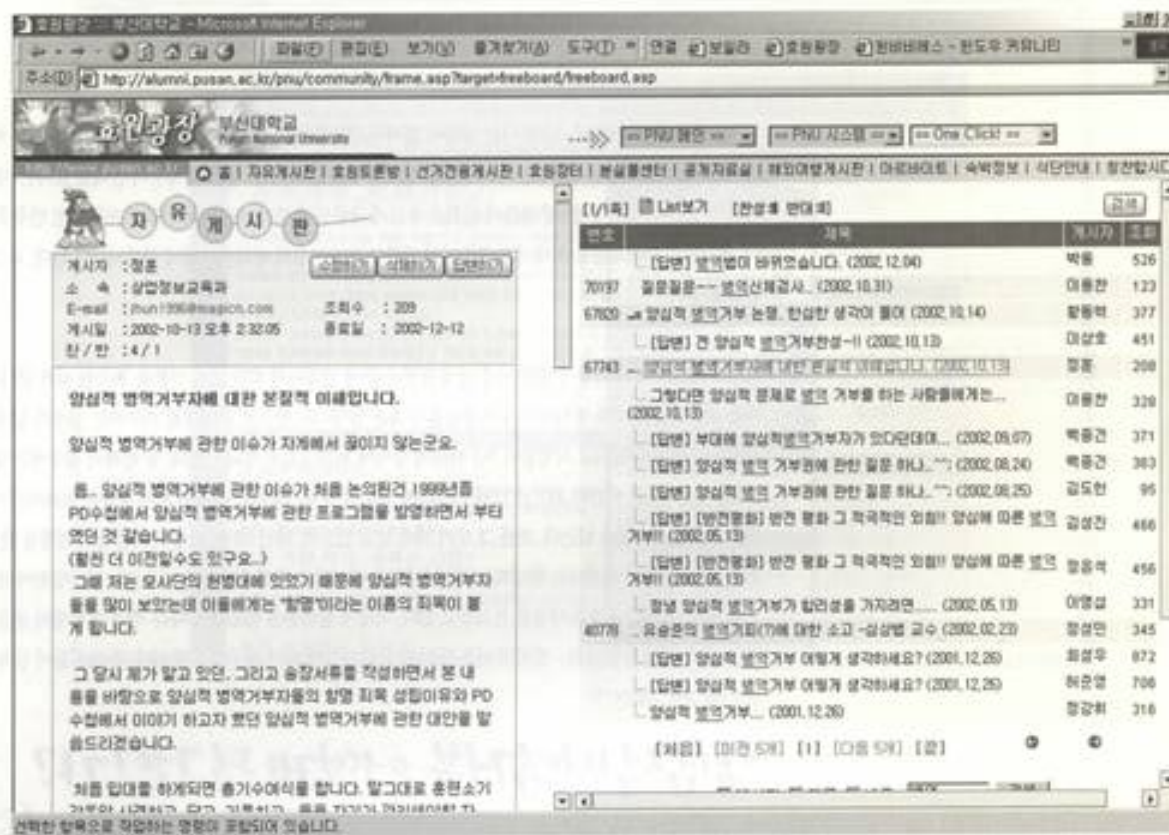
## 양심적 병역 거부 어떻게 될 것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남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반전과 평화의 측면과 개인의 양심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 군대는 폭력을 막기 위한 곳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가 생기고 전쟁이 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양심의 발현권을 뺏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자면, 독일의 복무 형태는 기본 병역, 군사 훈련, 비상시 복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의무자 전원에게는 우리나라의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민사복무'를 시키고 있으며, 그 기간은 13개월간이다. 복무 유형은 농장·양로원·개생원·재활원·장애자를 고용한 생산공장 등에 배치하여 복무토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체장애자 보호, 노인 및 장애자 봉사, 병원 앵벌리스 운영, 병원 간호 보조, 구조봉사 보조, 공공 건물 관리 및 수리, 주방 및 세탁 보조, 환경보호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민사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기본권이다. 개인의 자유를 일괄적으로 제한할 권리를 국가에게 있을까? 수면위로 떠오른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감옥을 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개개인의 각성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이 반전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를 좀더 인간다운 사회로 변모시킬 것이다.

#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오해를

기본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몇 가지 유형을 보인다. '나는 양심이 없어서 그 기간을 군대에서 고생했던 말야', '지금 우리나라의 분단현실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등등. 그래서 그에 관련한 오해들을 간단히 풀어보려 한다.



## 1. 군대에 다녀온 나, 양심이 없단 말야?

흔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면 군대에 가는 사람,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양심이란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각 개인이 살아오며 형성해 온 신념, 사상, 가치관이자,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군대에 가서 필수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평소에 따르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력이나 총검술 등의 군사훈련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군대나 군사훈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데, 군사훈련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군사훈련'을 강요 받았을 때 심각한 인격적 훼손이나 양심의 굴종을 가져올 수 있기에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 2. 양심이 개인의 것이라면,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아닌지 확인할까?

양심의 진위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일은 어렵고 난해한 일이다. 그래서 일찍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평화적 전통이 인정되어온 특정종교집단(퀘이커나 메노나이트 등)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게 한해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교적 신념만이 아닌 개인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지체없이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거부의 동기가 되는 양심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은 또다시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기에, 그 심의과정과 선별절차를 엄격하게 공정화함으로써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심사, 선별할 때에는 그 행위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기초한 진지한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일찍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권위 있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서 면담, 이력서, 신원보증서, 구두면담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대체복무 관정을 받게 된다. 현재 입법 추진중인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 에 따르면 대통령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 심의, 처분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3.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평화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져 온 인류의 보편적인 행위양식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들어 국면개방의 원칙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각 국가별로 정착되고,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동기로서만이 아닌 개인의 양심상의 이유에 근거한 보편적인 권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중 독일, 이스라엘, 대만을 비롯한 40여개 국에서 헌법 및 하위법을 통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안보환경에 있는 나라들도 일찍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군사적 임무가 아닌 비군사적 차원의 대체복무를 허용해 왔다. 현재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현재 전쟁 중인 1·2차 세계대전 중이나 직후에, 즉 전쟁위협이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독일 역시 동·서독이 대치중인 상황에서도 꾸준히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해 왔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를 인정하였다. 더군다나 우리의 안보상황은 물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대만조차 1999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은 안보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미 유엔에서도 87년 결의안을 통해 병역거부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기에 보장 받아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 4.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병역특례제도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대체복무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행 병역제도는 공익목적이나 방위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비군사분야의 군복무 인력을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공익근무요원(55,000명), 산업기능요원(55,000명), 전문연구요원(15,000명), 공중보건의(1,000명) 등 현역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3만명에 달하며,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거의 20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이는 매년 군입영 대상자인 40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들은 약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후 대체로 현역 군복무보다 다소 긴 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이는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과 유사하게 사회 봉사적 역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 면제는 거부하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할뿐더러, 병역거부의 동기가 대부분 '평화주의'에 기초한 것이기에 사회복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부산대 개교 52년 만에 첫 여성 부총학생회장

## - 정수희를 만나다

글 맡겨 bodrawn@hanmail.net

이번 대선을 두고 각 언론들은 'PK'의 표심이 승부를 가늠할 것이라 전망한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자리 잡힌 '보수 우익'의 지역에서 얼마나 개혁의 바람이 부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부산은 지역 특성상 변화가 늦고, 서울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제2의 도시라는 별칭에 걸맞지 않게 사회 흐름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성 출신 정계인물도 최근에서야 가뭄에 콩 나듯 생겨나고 있고, 시장의 상륙행 사건 역시 '그럴 수도 있는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지역이 바로 부산이다.

이러한 성향들은 부산소재 대학, 그것도 부산의 가장 중심적인 대학이라는 부산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벌써 이슈화되었던 섹스와 폐임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기들을 올해 총학생회에서 '콘서트악식'이라는 문화 행사로 진행하자 갖가지 루머와 언어폭력으로 거부감을 표하는 남학생들이 대거 출몰하기도 했다. 그래서 소위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부산대학 내에서 학생회 선거 때 여성 대표자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먼 얘기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이번 3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양 선본 모두 여학생이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개인적으로는 양 선본의 정책상 및 가치 오류들을 차치하고라도 이 것만으로도 신나게 선거 과정을 지켜 볼 수 있었다. ..

접전에 접전을 거쳐 지난달 28일, 드디어 한 선본(현재는 선거가 끝났지만 편의상 사용)이 당선이 되었고, 필자는 부리나케 첫 여성 대표자로서 스타트를 끊은 정수희 부총학생회장의 인터뷰를 실레이는 마음으로 요청했다.

지난 4일, 총학생회실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사실 그녀를 이렇게 유심히 본 것이 처음은 아니다. 두 차례 사회대 선거에 출마 한 그녀를 포스터에서 보고 '잘아 무지개도 생겼네'라고 생각했더랬고, 낙선 후 이따금씩 종적을 감추고 했던 타경우들과 달리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질끈 머리를 동여매고는 후배들을 삼삼오오 데리고 오던 모습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얼굴을 다시금 꼼꼼히 바라봤던 경험이었다. 그래서일까? 괜히 모를 친근감이 가는 그녀와 함께 2시간여 동안 방담을 나누었다.

그녀가 소위 '운동권'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불과 1여년 전부터였다. 그 전에 그녀는 노동과 계급을 공부하는 사회학과라는 '터'에서 선배들과 자연스레 사회 갖가지 정세에 대한 토론을 나누며 사회문제에 '관심'의 새싹을 피웠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3학년 때 과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과 공동체 강화하는 측면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좀 더 넓은 단대 운영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단대 선거 정후보로 출마 할 욕심도 품었다. 그때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운동'이었다.

"한 단대를 책임지겠다는 결심과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만 정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선배들의 따끔한 충고와 그녀에게 운동하는 삶을 결심한 계기가 된 셈.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 때 참 힘들었어요. 힘든 잡안 사정도 뻔히 아는데 줄임하지 않고 이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만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후배들 보면서 제가 행복해야 부모님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삶의 운동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철치부심해서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 그녀는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다. 사회대 출마 당시에도 정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그녀가 총학생회 선거에는 왜 부후보로 나왔을까? 같이 출마한 정후보에 비해 학년

도 높고 특별히 모자랄 것 같지 않은 그녀가 혹,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안살림이라는 통속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사실 그동안 공과대학 표가 총학생회 선거에 승패를 가늠하는 만큼 공대 출신 예비 남학생 후보자를 선호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다.

"요즘은 학내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갔어요. 제가 여자라서 관심을 가지기 보단 그냥 후보자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겨울 때 여자 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먼저 한걸음씩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그래서 여성후보자라고 출마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정수희씨는 말했다. 그리고는 "이번 인선에도 저도 물론 정후보로 나가고 싶은 생각을 했지만, 단대 학생회장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해 보고 싶다고 견해를 밝혔던 이경호씨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부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보자 인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신감'을 뽑았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표현할 만큼 사회화되지 못했고, 아직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존재하는 편이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여성주의의 인식을 가진 총학생회가 필요하고요."

여성주의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오자 필자는 그들이 내놓았던 여성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생리대 무상지급의 문제는 일종의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리대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행동이죠. 여성 취업에 문제는 총학생회가 올해 했던 토대에 힘을 얻어 더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각에서 제출했어요." 하지만 치열한 논의 없이 산발적으로 여성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서울 전학협에는 여성위원회가 대단한 파워를 가지지만 아직 부경학협에는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과학생회 발전 방향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내년에 대한 포부를 물었다. "학내 집행사업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과학생회장 출신인 만큼 어느 때 보다 학우들을 많이 만나며 과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밝히는 그녀. 내가 그녀에게 느꼈던 무던한 '책임감'이 내내에도 어김없이 발휘되어 학생운동의 발전은 물론, 여성 대표자를 기피하는 학내 분위기도 빠른 시일 내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녀들의 카니발, 출연시위, 해모수의 포스터 문제제기, 월장웹, 2002년 총여학생회 뿌리기 운동 등 학내의 여성과 관련한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국어국문과 박김혜정(가부, 24). 올해로써 5년 간의 대학생활을 접고, 부산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하는 일을 한다. 총여의 연대사업이기도 했던 '부산지역 성매매 실태조사'를 함께 했던 이들과 총여 활동을 같이 했던 이석윤미(다지, 24)와 함께 완월동 근처에 상담소를 개소했다. 12월 6일에 있었던 개소식에서 그녀를 만났고, 언니들에게 나눠줄 떡을 나눠 달라는 분주함 속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상담소 개소를 축하한다. 그리고 소개 부탁

감사합니다.(웃음)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소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일인데, 여성들이 거기서 못 나오는 이유 중 선불금 문제가 많거든요. 선불금 해결하려고 업주를 고소한다던가 선불금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서 동행하고 조서같이 쓰고 해결방법을 찾고 그런 일이 주로 많죠.

부산지역 성매매 실태가 어떠한가?

부산이 상당히 심각해요. 부산이 항구도시고 대도시라 밀집지역이 많아요. 사창가라고 보통 말하는 집결지가 많다. 완월동, 부전동, 해운대 등. 그리고 단란주점, 룸싸롱, 안마사술소 이런대서도 성매매를 한다. 그런 업소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만만치 않을텐데 각오한대?

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지요. 창창한 나이의 20대 여성중의 한 명은 성산업에 발이 묶여서 팔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잘못 알고있고, 남자들이 일상적으로 단란주점 등을 가고 있잖아요. 내가 한국사회에 있으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문제였죠.

앞으로도 꼭 이쪽에서 일을 할 것인가? 삶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

여기서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은 노후우라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우리 단체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경기지역이나 서울지역에 많이 물어봐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오래 일하면 노후우도 쌓이고 인맥도 넓어지고 하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성매매 쪽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피란민장(7)했던 대학시절을 뒤로하고 이젠 졸업인데, 지금 심정이 어떤가?

글 장동 alcock@freeshal.com



그녀, 현장속으로

## '살림'을 꾸려가는 박김혜정을 만나다

그냥 아직 우리가 시작단계고 지금 막 여성들 만나고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성과를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은 구체적인 개별사례가 그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불금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다음에도 다시 성산업에 유입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경제력을 갖고 사회적으로 훈련이랑 이런 것도 같이 찾아야 할 것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상담소를 개설하게 된 동기는?

왜냐면 부산에 성매매 단체가 없거든요. 서울에는 단체와 상담소가 여럿 있어 피해여성 구조 활동이 활발하게 있었다. 그러나 부산에는 없다보니 부산에 있는 사건을 서울 활동가가 와서 조사하고 상담하고 그런 경우를 많았어요. 성매매 산업에 일어난 발을 들여놓으면 보통 업소를 최소한 2세군대는 돌거든요. 여성들이 전국적으로 팔려가. 그래서 전국적인 연대가 필요해요. 부산지역에 전문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2학년 때 기저촌을 갔다오면서 성매매 문제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성매매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구경북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0대 여성의 10%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졸업하니까 너무 좋다. 얼마 전 졸업사정을 했는데 여짜나 기쁘던지 5년 있었는데, 학교가 지겨웠다.(웃음) 특히 여성운동 하면서는 연쟁을 하고 논쟁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대학생들과 논쟁하는 것이 정말 안 즐거웠다.

대학생활 중 절 기억에 남는 일?

월장할 때의 예비역 사태가 기억이 나요.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이, 찬하던 예비역도, 등을 돌리고 그런 것. 그게 기억이 나네요.

내년 총여에 하고 싶은 말은?

활동을 제정해 하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일이에요. 하다보면 자기도 얻는 게 있을 거고.

부산대 여학우들에게 여성주의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성으로서의 자기 삶에 관심을 가지면 되게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눈에 띄고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위해서 뭘 해야할까를 직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인 여성이 그 자체로 행복하다.

심민경, 법과대학 1학년. 한해 휴학 후 학교로 돌아와 바쁘게 움직이던 그녀를 페나 이리 곳에서 자주 만났다. 그때마다 총여로, 잡지로 오라고 꼬드겼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 그러던 그녀가 오랜 탐색을 머치고 드디어 '월장'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며 월장도 하고 HerStory도 역량이 되면 같이 하고 싶다고 너스레를 떠는 그녀, 이런 미워할 수도 없고.

'월장'이라 하면 열혈마녀야즘이 있으나 마초 및 마초주변인들이 끝없이 비워 하는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이 아닌단가. 마초들이 독실대는 부산대에서 '월장'이라 하면 주위의 시선이 굵지만은 없을터. 나의 경우 일 학년 때부터 알던 선배들도 총여와 '월장'을 하고 있던 사실, 너 알고보니 무서운 사람이었구나,라며 적만치 멀어져간 기억이 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 궁금했으나 그녀가 바깥에 넘어간다. "인식이 좋진 않죠(웃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부담갖진 않았어요. 겁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근데 만났을 때 주변

기때에는 고정은 아니었지만 민노당 학위 활동도 하고, 지방선거 자봉도 하고, 법대 신문 읽기 소모임도 하고 결국은 와해되었으나 법대 밴드부도 하려고 했었다. 일주일 내내 모임이 있었던단다. 이학기 때는 아무것도 안했고, 그리고 월장을 들어갔단다. "이학기 때는 아무것도 안했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어디든) 못 들어간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이 진짜 좋은 곳이라고,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이란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읽고 싶은 책도 잔뜩 쌓여있고 대학자 교수들도 있다는 것이 좋단다. 생각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대학에 감탄했단다. 다양성과 활발한 움직임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런 면이 월장과도 사뭇 어울린다.

사람들이 여성주의의 이미지에 집착하며 반대를 표하는데, 정작 실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단다. "여성들 스스로도 억압 속에 있다고 생각 못할 정도로 견고한 억압이니까 사회가 유지된 거지 아니면 벌써 바뀌었겠지요. 근데 무조건 육체적 성별만 가지고 앤 여성이니까 자기가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여성은 별로 불편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성급한 일반

글 장동 alcock@freeshal.com



##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의 새 멤버를 만나다

에 '월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웃음).

'월장'에서 여성주의를 말한다는 것과 웹진이라는 점이 너무 좋았단다.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소소한 일상과 하고픈 이야기를 종종 올리고 누구든지 와서 그 글을 읽을 수도 있어 좋아한다. 인쇄매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맛이 웹진에도 있다는 그녀. 요즘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는 'what'과 어떻게 말하느냐하는 'how'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동안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별리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월장'은 웹진이고, 자신들의 논조와 스타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그간 사람들이 '월장'을 비판하는 단 한가지의 이유는 말은 맞지만 글쓰기 방식이 싫다는 것이었다.) 참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만지일보'가 비본 것을 보면서 맞다, 이 새끼 말 잘하네 하면서 깔깔 웃고 그러면서 '월장'에서 비꼬면 억수 불쾌해하는 거예요. 찰리만 불쾌한거죠. 그리고 자기가 비판하는 쪽에 서있으면 '만지일보'처럼 억수 재밌는 거 같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라고 말끔하게 정리한다.

술을 대학생활이 지겨워지는 나와 달리 그녀는 아직 대학이 재밌기만 한 모양이다. 일하

화를 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이잖아요. 마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총여나 '월장'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아니까요."라는 말을 그들에게 하고 싶단다. 그리고 무엇이든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단다.

"걸거러 다니거나 어디로 여행을 만약에 갔을 때 혼자 벤치에 앉아서 풍경을 즐기고 있다가 이럴 때 안심하지 못할 것이거든요. 여성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억압이고 모순이죠. 성매매도 문제고 그렇고, 정말 이런 억압이랍니까라고 말하고 싶고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학내에 이런 언론이 있다는 것이 진짜 자랑스럽다고 생각거든요. 그런 점에서 활동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벽을 넘기가 힘들잖아요. 전 그 벽에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좀 찾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월장의 어렸든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계기위한 평가가 필요하겠지요. 난 그 글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한다. 취재를 하고 글을 쓰는 것이 참 재미난다는 그녀. 어떻게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지를 고민하는 그녀를 보면서, '월장'의 앞날에 무한한 안념이 있길 기원해본다.

# 'Perfect' 여휴를 꿈꾸며



글 맡김 bodawin@hamail.net



필

자가 여대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부시사하게 도서관에 가고 되고, 졸다가 침 흘려도 너그러히 봐주고, 여자라서 답때 피면 이상하다는 시선 안 받아 좋은 점, 바로 이것이다. 특히 월경이 겹친 날은 때가 아파서 아무데나 퍼질러 놓고 싶은데 마땅히 인상 썩고 있고 앉아 있을 때가 없을 때는 정말 여자들만의 환상의 공간을 수십번 그렸다 지웠다하기 일무였다. 이러한 나의 원초적인 욕구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산대학 내 공간, 그곳이 바로 여휴(여학생 휴게실)이다.

현재 우리 학교 내에는 문장회관, 사회대, 상대, 법대, 인문대 총 5군데 여휴가 있다. 그 중 문장회관은 총여학생회 관리 담당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 단대에서 관리를 맡아 하기 때문에 단대 학생회 선거철만 되면 여휴 개선이 복지 정책 중 큰 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등장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학생 휴게실을 좀더 편안한 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노력과 제기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거꾸로 되짚어 보면, 아직도 휴식공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여학생 휴게실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각 단대별 여휴 관리 실태와 내년 개선 방향을 취재해 봤다.

먼저 고사생이 많고 어두컴컴하기로 유명한 법대를 찾았다. 여러 여학생에게 물어 물어 찾아간 1층 109호실. 침대 2칸과 사물함이 놓여진 법대 여휴는 일단 물품 구비 면에서는 크게 부족한 면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청소 상태가 미비했고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날씨가 추운 날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법대 학생인 박지연(1)씨는 "여휴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내 주변 친구들도 이용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법대 여휴의 부족한 접근성을 지적했다. 법대 건물에 쓰고 있는 특수교육학과 김수임(3) 역시 "여휴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지만 현재처럼 지저분하고 이불도 구비되지 않으면 가기 싫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점에 대해 법대 회장 당선자는 "새롭게 달라진 여휴에 대한 구상을 진행 중이며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재 지저분하고 이불을 구비하는 것은 어떻게 마련한다 치더라도 난방 여부가 가장 큰 문제다. 현재 법대는 건물 전체가 난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에스코 사업이 실시되어 각 건물마다 난방을 위한 준비들이 이루어 졌지만 법대는 예외였던 것. 학내 규정상 난로 외 타 열기구를 들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른 단대들은 어떻게? 바로 밑에 있는 상대는 타 단대와 달리 1층 중앙에 여휴가 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아! 현재 '사용금지'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장관만 깔아놓고 있던 것을 보수하는 중이라 침대를 들여놓은 상태에서 정비를 못했던 것이다. 안현정(경제 3)씨는 "1학년 때 딱 한번 사용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려고 해도 대부분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고, 바닥에 이불만 놓여져 있어 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대 관계자는 "조만간 대대적인 청소와 침대를 놓을 예정이며 관리자도 조만간 정할 것"이라

고 대안을 내놓았다. 올해 선거 공약 중 중요한 사안으로 내놓았던 것 인만큼 확실한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인문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건물 한 칸에 위치한 인문대 여휴는 시멘트 바닥에 책상들만 즐비했다. 게다가 책상들이 순서 있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몰아 붙여 놓은 형상이다. 현재 인문대가 리모델링을 결정한 상태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여학생들의 휴게실이라 보기보다 과별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 처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였다.

위에 3개 단대보다 학생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곳은 사회대 여휴이다. 필자가 장소를 확인하려 방문했을 때도 2명의 여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노현정(사회복지학과 3)은 "편하고 사회대 수업이 많은데 가깝기도 하며 공부할 자리도 있는데다 취침까지 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타 단대와 다르게 사회대는 항상 깔끔하게 공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불이랑 침대가 청결한 것이 여학생들의 접근을 높이는 결정적인 이유인 듯 했다. 하지만 난방이 되지 않는 것과 의자가 딱딱한 점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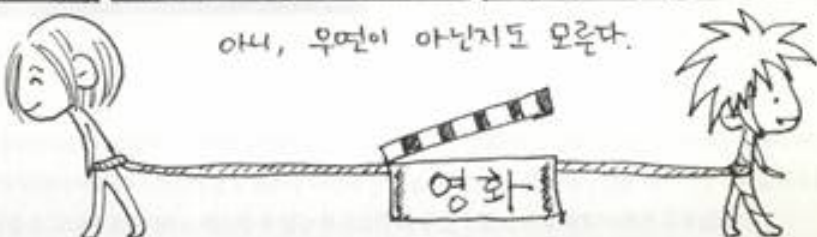
이렇듯 현재 여휴의 사용 실태는 난방과 관리자 부재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모두 학생회에 전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문대의 경우 단대 행정실에서 근로 장학생을 두어 여휴 관리를 하고 있다지만 행정실에서 때면 이를 점검하지도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강의실에는 제공되는 난방이 여학생들의 휴식처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편안히 쉬고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여학생 휴게실은 각 단대 관리자와 관심과 학교의 지원이 뒤따라야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학우들의 배려 속에 여학생 누구에게나 perfect한 여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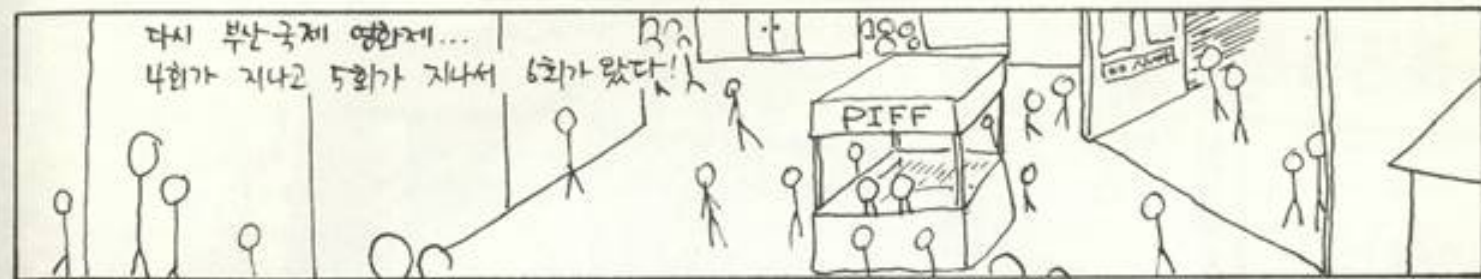
# 여자 대 (VS) 탐험

제 2 화

<그 친구와 나> 글: 그림: 명화



우리는 그렇게 또 헤어졌다.



우리는 언제나 만났었다.  
배배가 없어도  
핸드폰이 없어도  
서로의 연락처를 몰라도  
항상 우연인 것 처럼  
그렇게 만났었다.

나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

## 『막달레나 자매들』을 보고

글 영화 hmad00@hotmail.com

벌써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다.

내가 언제부터 영화제란 이름에 설레임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시민회관과 해운대에서도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가까운 표를 두 장이나 찍히고 말았다. 이번엔 굵은 표들 중에서 이 영화는 마지막 작품이다. 아뵤든 나는 시민회관으로 가고 있다. 막달레나 자매들을 보러간다. 사실 나는 이 영화에 대해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고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가 있었다고 하지만 대체 등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사실 내가 왜 이 영화를 선택해서 예매했는지 잘 모르겠다. 페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이라고 써있어서?

1960년대 이탈리아의 막달레나 수녀원. 네명의 젊은 여성들이 수녀원의 장엄한 각급 생활을 견뎌내고자 몸부림친다. 가족들이나 교우들에게 보내진 이별 소년들은 자신의 죄의식에 대한 죄의 의의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식을 너무 애썼거나 욕망했거나, 너무 똑똑하거나 마약중독자라는 것, 각자 강박을 당했거나 미혼모이기 때문이라는 어불성설의 것들이다. 『막달레나 자매들』은 이 일련된 사건을 각급 생활에서 지냈다는 청춘의 가족 행위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룬 작품이다.

라고 영화제 소개 쪽자에는 쓰여져 있다.

시

간이 촉박하다. 빨리 밥 먹고 왔나? 시민회관이 어딘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문현역에 내려서 넘새나는 동천을 끼고 돌아 시민회관의 보라색 벽면을 찾았다. 웬걸 보라색 벽면은 안보이고 커다란 현수막에 부산국제영화제의 로고가 보인다. 뛰어갔다. 간신히 시간을 맞췄다. 오랜만에 오는 시민회관은 나중에 둘러보자. 시민회관 대강당은 생각보다 컸고 시설도 좋아졌다. 우와, 2층도 있고 아뵤든 내 자리를 찾아 들어가 앉았다. 영화는 바로 시작이다.

부끄럽게도 위에 있는 소개 글을 본 내 소감은 예쁜 게 죄가 된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예쁜가 정도의 호기심뿐이었다. 과연 나는 페니스 영화제 모모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모두들 똑똑해 보이는 관객들이다. 조명이 꺼지고 영화시작. 다시 불이 켜지고 영화는 끝났다. 평상시 영화관에서는 마지막 장면이라 사라지는 장면만 나오면 사부작대는 소리에 감동이 반갑고 자막 올라갈 때 감동에 겨워 그대로 앉아있으면 직원의 싸늘한 눈초리에 혼자 주책 떠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가 어디인가. 역시 자막이 다 올라가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엉덩이를 떼질 않았다. 덕분에 궁상떨지 않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는데.

우선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마가렛(전혀 별 되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버나넷(이 사람이 이런 얼굴의 주인공... 참엔 도대체 어디가 예쁜가라고 생각했는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정말 예뻐 보였다. 예뻐서 불편한 생활을 할거라는 웃기지도 않은 오해로 교우원에서 퇴출된 경우), 로즈(미혼모, 수용소 안에서는 그녀가 카운터 개 아류인 페트리샤로 불린다)가 그 수녀원에 가게 되는 과정과 함께 영화가 시작된다. 그곳은 수녀원이라고 하기에 딱하다. 자매들은 수녀들이 것 같고 나머지들은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그 노동으로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요받는다.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의 세 사람과 같이 죄 아닌 죄로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해서 강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철저한 감금과 공간, 압박, 구타 등으로 자유를 잃었다. 이 안에는 많은 여자들이 감금되어 있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결국 이곳을 탈출한 3인이다. 초반에는 수용소의 잔인함과 비인간적임과 그 외의 그 추잡스러운 면에 차를 떨었고 중반에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며 따라갔다. 중반에는 통쾌한 장면들도 있었지만 통쾌함이 결코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종류의 쾌감이 아닌 가슴 아픔을 동반한 통(痛)쾌감이었다. 한 장면 한 장면 모두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표현력이 딸림과 지면이 딸림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국 세 사람은 탈출을 한다. 탈출이란 말에서 쇼생크 탈출과 같은 느낌을 기대했던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탈출을 염원하고 염원하던 그들이 점점 지치고 포기하고 있을 무렵 마가렛의 남동생이 그제사야누이가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데리러 온다. 그리고 데리고 나간다. 그것이 끝이다. 안에서는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밖에서 누군가 찾으러 온다면 그냥 간단한 일이다. 결국 그 안의 수많은 여자들에게는 데리러 올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마가렛이 짐을 싸며 말한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나머지 두 여자의 탈출은 더욱 황당하게 벌어졌는데 버나넷과 로즈는 대장수녀(女)의 사무실에 일서를 훔치러 간다. 당연히 대장수녀는 저지하지만 잃어버렸던 금고 일서를 찾아주자 그냥 놓아준다. 그들은 출대를 휘두르면서 다른 수녀들을 위협하며 당당히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간다. 떠나 나오면 죽어버릴 꺼야'라고 소리치면서 말이다. 나는 속으로 다들 뛰쳐나와! 버나넷, 외제! 다들 나오라고 외쳐! 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쉽게도 탈출은 그 둘만의 것이었다. 물론 그 후는 알 수 없지만.

또한 명 배우를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저금 그 이름이 생각 잘 않는다. 그녀는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끌려 왔는데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아픔인 듯했다. 그녀는 아들과 하나씩 나눈 목걸이를 아들의 분신처럼 생각하는데 목걸이를 잃어버리자 그 목걸이를 찾기 위해 목사의 성직 높이가 돼기도 한다. 천성적으로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머리는 나쁘지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부당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눈물을 흘렸다. 영화 중반부에 마가렛의 계약으로 옷이 울은 옷을 입고 연설을 하던 신부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온 몸을 굽으며 도망쳤을 때 그녀는 자신의 차마를 건어올리고 사타구니를 긁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자식이 없어!'라고 계속 계속 외친다. 목사의 행동에 대한 우스꽝스러움과 그녀의 눈물, 그리고 고통소리의 묘한 조합은 가슴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 일이 있은 후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고 아들도 한번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쳐야했다.



영

화를 보는 내내 시종일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다. 저 여자들의 적은 누구일까? 라고 너무 과격한 말인 것 같지만 그녀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엔 그녀들을 그곳으로 내몬 주위 사람들, 특히 아버지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중반에는 대장수녀 이하의 수녀들과 목사가 주인공들의 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무작스러움과 위선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되도록 하기 충분했다. 여성영화라는 이름이 가진 기대로 이 영화를 봤고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 정도를 생각했던 나는 이 영화에서 가해자가 여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차나서 생각해 보니 결국 남성 여성을 떠나,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립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처음으로 그녀들을 수용소로 내몬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녀들이 자신에게 짐이 되었을 것이고 골칫거리였던 것이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를 발휘할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는 없었다. 수용소의 목사와 수녀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길도 없었고 가족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가족들에게서 구타당하고 위협받으며 다시 잡혀 들어왔다. 수용소에 돌아오면 다시 벌을 받고 더욱 힘든 일만 한다. 악순환의 연속고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녀들은 가족을 원하지만 가족은 그녀들을 외면한다. 그녀들은 정말로 철저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녀가 형제를 가지고 있던 마가렛은 수용소를 나갈 수 있었고 끝까지 희망과 오기를 잃지 않았던 버나넷과 로즈는 탈출할 수 있었다. 그녀들은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갑자기 에스카움이 밀려온다. 나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나... 나의 가짐으로 인해 다른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불행과 불평등을 겪고 있나...

문은 열려있었다. 수용소에서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마가렛이 우연히 열려있는 문을 보고 그곳으로 나가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녀는 자유를 누릴 여유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열린 문으로 다시 들어온다. 다시 문이 굳게 닫힐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적인 무채색으로 도배한 영화를 보고 오후 네 시의 밝은 햇살을 받으니 별세계에 온 기분이다. 이것으로 나는 또 하나를 가졌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지 제각기 카메라, 캠코더를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과 영화제 로고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잡을까에 혈안이었다. 대형 영화 포스터 속의 장동건의 얼굴과 마주대고 사진 찍어대는 사람. 쳐다보고 있자니 웬지 불안해져 버려서 시민회관 주변을 좀 살펴보려라는 초반의 생각도 잊고 총총 집으로 와버렸다.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세상사는 것은 정말로 만만치가 않다.

이시대를 보라

감독: Alexa Wolf  
Sweden/1999/작가/58min

한편 이 작품으로 인해  
 그는 이 작품의 이름을 지은 후 곧 퇴학당  
 의 자유 후의 사회에 대한 불평을 여러 가지 단상  
 (한글과 고 제10호) 기사 중에서

主 要 成 分

『박노자의 북유럽탐험』 『포르노노이드』

스페인다리아주들에게 일종의 '개관'을 준 힐로 감독의 다량 영상은 '포르노노이드'의 공짜가

전 세계적으로도 '포르노노이드'라는 개관이다. 포르노노이드가 있는 것이다. 포르노노이드를 통해 포르노노이드의 공짜가

만 어디 한곳에서 일어난다는 개관. 포르노노이드가 있는 것이다. 포르노노이드를 통해 포르노노이드의 공짜가

지는 노르드 왕조에서 포르노노이드를 통해 포르노노이드가 있는 것이다. 포르노노이드를 통해 포르노노이드의 공짜가

가진 사람은 포르노노이드가 본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포르노노이드를 통해 포르노노이드의 공짜가

그러한 개관과 포르노노이드를 통해 포르노노이드가 있는 것이다. 포르노노이드를 통해 포르노노이드의 공짜가

만 포르노노이드를 통해 포르노노이드가 있는 것이다. 포르노노이드를 통해 포르노노이드의 공짜가

[illegible][illegible]

1259 5

글 김대룡 [lokong38@hotmail.net](mailto:lokong38@hotmail.net)

**Shocking Truth** 스웨덴 어느 대학의 학생이 주인공이었다. 교수가 리포트를 내었는데 그 학생은 포르노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정했고 교수는 허락했다. 학생

home.pusan.ac.kr/~herstory 27

## 이제는 실연 '당하지' 않으리

글 정우윤 yunja@pusan.ac.kr

연애에 실패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흔히 '실연(失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실연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대개 실연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아마 상대방에게 연애 실패의 책임을 더 크게 두거나, 자신의 책임을 조금은 덜려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나에게도 연애에 실패했던 몇번의 경험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연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의 쓰라린 경험과 아픔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아픔을 간직한 채 실연한 경험들을 떠올릴 때면 나 또한 '실연을 당했다'고 얘기할 지도 모르겠다.

연애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하고도 힘든 과정이다. 우리가 무수히 떨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애관계는 '관계의 최고단계'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고 의미있는 일이다. 실제로 주위에 수많은 커플들의 서로 변화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 말이 오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지 않은 커플들도 많지만...) 그렇다면 나도 연애를 통해 어떤 변화와 발전들을 이루었겠는가.

내가 연애를 해왔던 과정을 돌아본다. 잠시동안의 풋사랑에서부터, 짝사랑, 외사랑 등 언제나 사랑을 통한 관계를 맺기 위해 무던히도 바둥거렸던 것 같다. 지금도 그때의 아련한 추억에 가슴이 파하고, 명하니 그 사람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이런 과정에서 실연의 경험도 언제나 함께 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연의 경험이 있다. 누군가를 예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하다 내 주위를 둘러보니 그 친구가 있었다. 사랑인줄 알았던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고, 그 감정을 그 친구와 나누려고 하였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서로의 코드가 달랐던 것인지, 나의 감정에 너무나 치우친 연애과정이었는지 얼마 못돼 말그대로 실연을 '당했다'. 예전에 서로 의지하고 힘을 보태주는 그런 동지호제의 관계까지 정리한 채로, 연애를 실패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이제야 조금씩 느껴진다. 솔직히 두렵고 자신없는 것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던 좀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어딘가에 있을 나의 연애를 기다리고 있다.

소위 연애를 하는 관점이나 자세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반영한다고 한다. 나 또한 실연의 상처 속에서 나의 현재와 나의 오류들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수없이 부정해보면서.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무나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하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기에 신중하게 다가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지금도 한 여자가 내 맘속에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거야',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아직 동네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실연 속의 경험들을 계속 되뇌이지만 어찌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아직 내가 연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발전하려고 변화하려고 하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앞으로 맺을 관계의 최고의 성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다시 실연의 상처를 갖는다고 해도 이제는 실연 '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갑자기 실연의 아픔이 전폭 녹아난 발라드 한 곡이 생각난다. "지운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을... 네가 잠시 너의 곁에 살았다는 걸---", 이 노래는 술만 먹으면 부르는 노래인데 술 취했다. 예이. 씨x~

(이 글 쓰고 연애가 더 하고 싶어졌음. 잡지책임자들! 알아서 책임지쇼)

## 사랑하는 그녀를 아프게 했던

글 양문

화창한 어느 가을, 한 소녀를 만났다. 초등학교 교정의 교실에서 만난 그녀는 켄지 모를 슬픔과 피해의식이 때문에 가까이가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모습 뒤의 까닭 모를 그림자가 그녀를 힘겹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때 그녀의 눈물자욱과 상처들을 잊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은 내 옆에서 언제나 웃음과 계몽으로 날 간지럽힌다. 이제 그녀는 때론 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게 서서히 그 상처들은 지워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서서히 불안해 지는 건 그녀의 상처들이 치유됨에 따라 존재가 필요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 이전에 만난 그녀의 사랑, 어린 나이에 만난 그 남자는 그녀에게 너무나 잘 해주었고, 그런 그에게 그녀는 서서히 끌리며, 둘은 끝도 모른 채 빠져들고 있었다. 둘의 사랑은 깊어졌고, 미래를 생각하며 착하고 이쁜 사랑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서울의 일류대학에 합격하고 그녀는 지방대학에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다. 처음엔 그녀와 그는 식지 않을 사랑을 다짐했을 것이고 주말마다 볼 수 있는 주말 커플이 되었다. 둘은 나름대로 자기 생활에 노력을 했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간다 했던가.

조금씩 멀어짐을 느낀 그녀, 믿지 않았다. 그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걸 눈치챈지만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별의 통보를 받은 순간에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그녀는 현실을 믿지 않았다. '거짓일 것이다. 날 놀리는 것이다. 다시 돌아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가 없는 세상보다 그를 잊어야 한다는 것과 예뻐 믿지 않으려 했던 그 현실들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중요하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걸 용서하려 했지만 땅가진 그녀의 몸안은 그를 용서해 주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술이 취한 차안에서 강제로 다가왔던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분노와 불신으로 그를 처벌하려 했었고 여러 야상단체에서의 도움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를 만났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많이 여위고 초조해하며 답답을 얻거꾸로 피대는 그를 보면서 또 한번 그를 용서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다.

그를 잊으려고 술과 담배로 세상을 살려고도 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모든 것에 엄중을 느끼고 그녀는 공부를 택했다. 무서울 만큼 그녀는 자신의 성공과 미래에 있을 복수만을 생각하며 노력했다. 지금의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쥐어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다음 달이면 캐나다로 떠나는 그녀에게,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는 그날까지 내가 항상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슬프게도 그녀를 지금껏 잊게 한 것은 복수하겠다는 일념이었다. 하지만 더욱 슬픈 건 이제 잊었던 상처를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 그녀에게 너무나 바거운 그 일이 그녀와 나의 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와의 만남에서의 입은 상처를 잊지 못해 다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극이 그녀에게만은 남지 않았으면 한다. 항상 모든 것을 잊은 듯 맑은 웃음을 보여주는 그녀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PS. 어떤 영화예선이 그러더라구요. 사랑했던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내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부산대학의 실연남, 실연녀님들. 보내주세요. 물론 보내지 말고 맘도 보내주시라구요.

## 상처와 더께

글 권선이

뜻내기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미숙한 사랑은 '나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에리히 프롬

에리히 프롬의 저 말 중 뜻내기의 사랑에 한가지 의미를 더하고 싶다. 나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 사실 철저히 이 원칙에 따른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것이 첫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흔적이나 추억이 신기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 나는 실연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 최초의 실연은, 애초에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은 뜻내기 사랑이 끝나고 난 후였던 것 같다. 고등학교(남녀공학이었다)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사귀었다가 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백을 했을 때 차이는 경우에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일 테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다. 이런 가슴이 아프지만 치라리 이해가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착하게의 입막을 경우에는 오히려 행복을 빌어주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다. 호감도 있고, 다 괜찮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연애를 할 만한 수준의 감정은 아니라는 예의바른 거절에서부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맘이 안든다고 말해버리는 써가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포기가 빠른 사람은 빨리 포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미련이 남는 사람은 칠전팔기로 도전해보는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추스르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다. 그런 사람에게는 연애라는 것 자체가 바겁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적어도 어떤 가능성은 있다. 나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불행하게도 나는 세 번째의 경우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있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해서 말이다.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바겁다고 했고, 자신은 연애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핑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자기 자신의 미래와 현실에 대한 고민이 꽤나 컸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집으려 했지만, 좋아하게 되기까지가 2년, 잊기까지가 또 2년이 걸렸다. 내가 미련이 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참 답답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에게 인생의 조언도 해주고 싶을 정도다. 그가 나에게 가졌던 호감 이상의 감정도 알고 있었고, 그 역시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연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보다, 자기 성취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는 친구를 대할 때도 (아주 성실하기는 했지만)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런 사람에게 연애라는 관계는 참으로 잠글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틀렸다고 지적해주고 싶다. 나는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내 삶의 슬한 가능성들을 보기 때문이다. 내 삶을 위로하는 방식을 배우고, 다른 길을 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을 이제는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어떤 식으로든, 실연의 상처는 오래 간다. 그 상처를 아무만지는 것은 시간이지만, 치유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랑이다. 음화화화(당연히, 이것은 망구 내 경험상의 얘가지지만).

## 그렇게 이별을 했었지만

글 sadmovie

난 담배냄새를 싫어하지만, 그가 담배를 파우는 것은 정말로 분위기가 있어 보였다. 텅텅한 담배냄새가 나는 키스도 켄지 낭만적일 정도로. 그러면서도 나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생떼를 썼었다. 왜 그랬던가. 같이 오래도록 함께 늙고살아서 그때의 둘은 나를 지금의 나로선 이해할 수 없다.

짧게 사랑하고 이별이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도 나도 사랑에 참 서툴렀던 것 같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혼자만의 공식에 그를 끼워맞추었고,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도 그러자고 했다. 그리고 나는 헤어짐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만나자고 메달렸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많이 힘들었다. 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그가 나의 전화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이별 후 친구들과 자주 노래방을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펜서리 눈물이 흘렀다. 그의 친구들과 마주할 때도 나는 너무나 힘들었다. 친구에게 전해들은 그 사람의 소식에 답답했지만, 그 소식들은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동안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우연히 그와 마주쳤을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다. 그도, 그랬다.

사람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나로서,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그의 존재가 너무나 버거웠다. 내 것을 쟁기느라 항상 바쁜 나를 보면서 외로워하던 그의 모습이 내내 눈에 박혔다. 그가 나를 멀리하려하는 것 같아 보였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나를 싫어할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은 생각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사랑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누군가 가르쳐주었다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그라는 존재는 내 환상에 덧칠되어 더 빛나보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좋다. 아니, 좋았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를 참 많이 사랑했다. 그와 헤어진 뒤에 몇 명의 사람을 만났지만, 것처럼 절실한 열정을 주는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알고 있다. 비디오는 끊어 냈고, 돌이 쓰던 커뮤니티도 폐쇄된 지 오래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그와 나를 이어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교차점에서 우린 스쳤을 뿐, 그도 나도 다른 궤도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나도 그때처럼 행동할 수도, 순수하게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나는 많이 변했고 그도 그럴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보았자 결과는 또 이별일테니.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도 가끔 그가 생각이 난다. 그를 사랑하며 들떠 있던 나도 그때는 세상이다 내 것 같았는데.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잘 살고 있는지, 가족들은 어떤지 그의 근황들을 묻고 싶다. 아자친구는 생겼는지, 친구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헤어진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습게도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끝났지만, 끝났다고 믿고 있지만, 그 사람과 담담히 마주할 자신은 없다. 그렇지만 연애가 되더라도 꼭 한번은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지. 내 현재를 뜨겁게 달구어준 그를. 이미 사랑이 아니더라도.

## 당신의 웃음은 '첼' 있습니까?

글 벨리 ddosily@freechal.com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가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꼭짓기야 방송에서 흔한 소재로 쓰였지만, 이 프로그램은 남과 여 한쪽 성만 스타로 구성하지 않고 스타들간의 본격적인 화합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며 인기를 얻고 있다. 제작진들의 기획의도처럼 이 프로그램이 연예할 시간도 없이 바쁜 연예인들에게 진정한 로맨스의 장을 열어준다면 크게 나쁘지만은 않을 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카탈게임과 카탈게임, 그리고 인기투표의 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카탈 게임 방법을 보면, 여자연예인을 들어왔고 남자연예인들이 림보를 한다가나, 남자출연자가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려서 발로 여자출연자의 배를 지탱하거나, 또는 남자출연자가 여자출연자를 안고 무릎으로 걸어가서 여자에게 과자를 따먹게 하는 식이다. 이 때, 남자출연자가 게임을 아주 힘들어하면, 진행자인 강호동과 '자막' 등에 의해 계속해서 놀림을 받는다. 똑같은 방식으로, 남자출연자를 힘들게 하는 정마르지 않은 여자출연자 역시 강호동과 '자막'의 권찬을 비껴가기 어렵다.

프로그램은 남성의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한 편, 여성에게는 남성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가벼운 나약함 등의 가치를 요구한다. 출연자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시선을 견디고 수행해야하고, 시청자들은 이것을 보며 가학적인 웃음을 소비한다. 웃고 즐거운 와중에 시중에 유통되는 극단적인 이상애착/가부장적 성역할모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또한, 이들 게임이 성적 혐의가 있는 게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게임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 스캔들이 많기 때문에 '부적절한' 스캔들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그러한 소재는 스포츠선물들이 스캔들화하여 산문판아먹기에 딱 좋은 소재이다. 그것도 여자연예인의 사진이 크게 드러난 사진과 "꼭짓기"와 "첼"로 만났다. 라는 표제처럼 성희롱의 문제보다는 여성신체의 성적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어서 말이다.

이런 가학적 카탈게임을 통해서 서로 사람이 싸들지 의문이거나, 구애를 하

고 커풀이 되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 이른바 '판카킹'을

자신이 받은 화살표의 숫자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른바 (표출됨에 강제가입되는 식의 진행방식은 '로맨스' 보다는 '서바이벌' 게임 을 닮았다.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몇몇 화살을 받지 못한 여성출연자들이 눈물을 보인 적도 있다. 아무리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아무에게도 선택당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인가? 그러나, 이 출연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되려 강호동은 특유의 '갈구기' 식 유머를 통해서 한 표도 받지 못한 여성출연자들을 갖고 논다. 최근엔 그런 모습이 시청자들의 눈에도 거슬렸는지, 방송을 하면서 몇번 거다 풀도록 하기 위해 '평상의 시간'을 두기도 했지만, 그 역시 우스갯거리식으로 때워지는 의미 없는 시간이다.

더 큰 문제는 '꼭짓기' 프로그램이 시청률 1위로 인기가 있다. 다른 방송사에서 도 똑같은 프로그램에 매치한 것이다. KBS의 '장미의 선택'은 한 술 더 떠서 남녀출연자를 각각 12 또는 21 비율로 구성해서 결투유발의 경쟁구도로 진행하고 있다. 연예의 주도권이 남성의 전유물로 규정되어있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인식 속에서, 항상 구애의 대상과 객체였던 여성이 구애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 권력과 역할의 전복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성이 구애의 주제, 혹은 선택의 대상이 되었을 때, 대개 받지 못한 표정의 여성출연자들은 질투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남자의 환심을 사려는 존재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 (이 프로그램 개시전에 한번 들어가보시기 바란다. 여성출연자들의 '첼'들이 발이는 연상전이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남성출연자들은 느긋한 미소를 입안 가득 머금고는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지 행복한 걱정을 할 뿐이다. 누구 좋으라고 이런 프로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왜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이런 프로를 편성해서 국민들의 혈압을 높이는지, 알 수 없다. 공영방송이든 SBS에서는 어른보다 순수한 어린이들을 등장인물로 하는 것이 눈요깃거리로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 아이들을 내세운 꼭짓기 프로그램으로 변형 편성했다. 기획자의 기획의도의 불순함은 그렇다 쳐도 이 프로는 보기가 그렇게 심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구애를 거절당해 '내함' 당하는 아이도 거의 없고, 순수해서 그런지, 이쁘고 잘 생긴 예들만이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뒤뚱수치는 케이스도 별로 없다. 한 번은 남자아이 중 한 명이 '누가 제일 좋아?'라고 사회자가 묻자 여자에 이름을 대지 않고 자기는 남자아이 누가 좋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방청객들이 아주 크게 웃었고 이 아이는 웃는 사람들을 보며 외아해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다 큰 어른들의 꼭짓기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면 그것은 '쿠데타' 있을 것이다. 동성애나 아니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꼭 그 자리에서 피상적인 성별을 기준으로 바꾸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가 좋다고 말하는 남자아이를 '첼없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쉽게 웃어버린 그들의 '첼없는 웃음', 그것이 폭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을까?

이상애와 가부장제의 환상으로부터 한 치라도 어긋나는 것이 그렇게 우스운가? 전쟁 첼없는 시청자 당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먹는 방송사, 제발, 첼 좀 들어라.



## 편집 후기

힘들었다. 요즘은 내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 계속 맡겨진다.  
졸업하는 인간들 질먹고 잘살길. 그리고 언제나 변치않길.  
얼마 전 헤어진 친구에게 미안함을 전한다.

-강동

정말 고생했다. 답엔 더 잘 만들어야지.  
새해 다들 이빠지길. -팔쭈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지만 결국 탄생! 경축~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평상심

여러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곳곳히 우리의 헬스  
토리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백번쯤 더 이  
런 마감을 해쳐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명화

편집부의원 모집

051-510-1924  
alicekhj@freechal.com